

광복71주년 및 仁海탄신 137주년 기념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
축하법설 (2016/8/29 10:00, 성북동 심우장)

만해선사의 대승사상으로 민족통일의 길 모색

만해스님 탄신 137주년을 맞아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이 열리는 이곳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스님이 1933년부터 10여년 동안 주석하셨던 곳으로 아직도 만해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못 많은 사람들은 만해 한용운을 흔히 독립운동가나 시인으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면목은 대선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제하고자 한 대승보살도의 실천가라는 점입니다. 만해는 1917년 겨울 39세에 설악산 오세암에서 인생과 우주의 실상을 크게 깨닫고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사나이 이르는 곳마다 바로 고향이건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나그네 시름 속에 헤매였는가
이제 한 소리로 삼천세계를 갈파하니
백설 속에 복사꽃이 편편히 흩날리도다!
(男兒到處是故鄉 幾人長在客愁中 一聲喝破三千界 雪裏桃花片片飛)

만해스님의 독립운동과 불교개혁운동은 모두 진리와 현실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대승 공사상의 실천이었습니다. 심한 핍박에 있던 시대와 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은 만해사상의 핵심이자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이었습니다. 만해스님은 전통적 제도나 인습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시대와 중생에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하여 요익중생의 길을 찾는 것이 대승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만해스님에게는 ‘감방’이 바로 ‘선방’이었으며, 번뇌가 곧 보리였습니다. 생사를 초탈한 수행력으로 일제의 박해나 세상의 영리에 영합하지 않고 초지일관한 언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찍이 조지훈은 ‘민족주의자 한용운’이라는 글에서 “만해는 혁명가와 선승(禪僧)과 시인의 일체화, 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요, 선생이 지닌 이 세 가지 성격은 마치 삼각형과 같아서 어느 것이나 다 다른 양자를 저변으로 한 정점을 이루었으니, 그것들은 각각 독립한 면에서

도 후세의 전범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해가 직접 추가한 삼일독립선언서 공약삼장에서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과 주장을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약삼장의 정신은 자유, 비폭력, 세계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해의 민족 통일 이념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정의 생명을 중시하는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대승불교 정신인 것입니다.

또한 만해는 1919년 11월 상하이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에 실린 논설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서 독립정신과 조선이 독립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글을 통해 민족자존성 및 자유주의는 우리 독립의 기반이자 원동력이었으며, 세계에 대한 의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자유와 평등권은 인간의 본성이며 세계의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상적인 최고의 행복은 자유와 평화이 바탕에 있다는 것이 만해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해는 우리 민족의 독립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본질적인 생명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 성인입니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므로 자주적 독립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며 따라서 그 운동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 운동도 자율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해의 자주 독립사상을 민족통일 운동으로 승화하겠다는 한국통일문학축전의 발원은 그 향기가 더욱 그윽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가짐은 남과 북을 이어줄 수 있는 통일의 원리가 되고 실천의 가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축전을 통하여 조국이 둘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감정이 진정되고 통일과 화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대회장 선진규 법사님과 만해사상실천연합, 한국불교문인협회, 대한불교청년회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도 고마움을 전

해드립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에게 불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8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